

‘음료회사 협박’ 용의자 추적

광주 남구 일대 음료수 회수

‘탄산음료 독극물 주입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 확보에 나섰다.

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음료회사를 상대로 용의자가 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 광주시 서구 광천동과 남구 백운동 PC방에 입력된 ID를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협박 메일의 ID사용 흔적이 있는 이모(여·37·대구시)씨와 김모(41·대구시)씨 등 남녀 용의자 2명에 대한 신원을 확보,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이날 형사대를 대구로 급파했다. 경찰은 애초 음료회사를 상대로 게시물을 작성한 데 쓰인 2개의 ID 사용자 박모(33)씨와 문모(48)씨에게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단지 ID를 도용당했을 뿐 PC방을 찾은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시물이 2곳에서 작성됐고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2명 이상의 범행으로 보고 음료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과거에 비슷한 협박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광주시 남구 모 시장 일대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탄산음료 10병에 독극물 음료를 투입했다’는 협박범들의 주장에 따라 이 일대 도·소매점 3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350mm PET 1병이 기준 용량 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지만 문제가 없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음료회사는 백운동과 주월동 일대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있다.

앞서 유명음료 홈페이지 고객센터에는 지난 1일 ‘20여원을 주지 않으면 탄산음료 50병에 독극물을 넣겠다’ ‘10병에 이미 독극물을 넣었다’는 글이 각각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환경평가 안거친 사업승인 무효

대법 판결, 개발정책 큰 영향 미칠 듯

사전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함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면 ‘사업승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 244명이 “육군 1968부대의 강원도 철원군 박격포 훈련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주민의 건강 수렴 및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을 원칙 분해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개별적인 이익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천동 버스터미널 내 초대형 ‘영풍문고’ 개점

광주 서점가 ‘지각변동’ 예고

소비자들 환영·토종 서점은 울상

광주에 체인형 대형 서점이 개점, 서점가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토종 서점업계의 사망선고’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1984년과 1995년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의 광주 진출을 막았던 서점조합도 “이번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영풍문고 개점 = 지난 1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내 400평

규모의 영풍문고 광주점이 문을 열었다. 영풍문고는 개점 기념으로 각종 경품을 제공하는 한편 영풍문고 북클럽 회원에게 구매액의 3%를 적립해주고 1천원 이상이 되면 영풍문고 전 지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mileage) 서비스를 운영한다.

현재 가개장 상태인 영풍문고는 400여 평의 공간을 더 확보, 30만 권에 달하는 책을 준비해 오는 12월까지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김종수 점장은 “첫 주말과 휴일인 1~2일, 하루 매출은 2천여만원

이라며 “계획했던 매출에 거의 근접했다”고 말했다.

영풍문고 광주점은 전국 19번째 지점으로, 800여 평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서울 종로점과 강남점 다음으로 큰 규모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부산 2곳, 대구 3곳에 지점이 있다.

◇환영 VS 울상 = 소비자들은 더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광주 지역 서점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마일리지 서비스도 매력적이다.

시민 김근형(33·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는 “광주의 서점에서는 책을 구할 수 없어 가끔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다”며 “대형 서점인 만큼 필요한 분야의 책을 광주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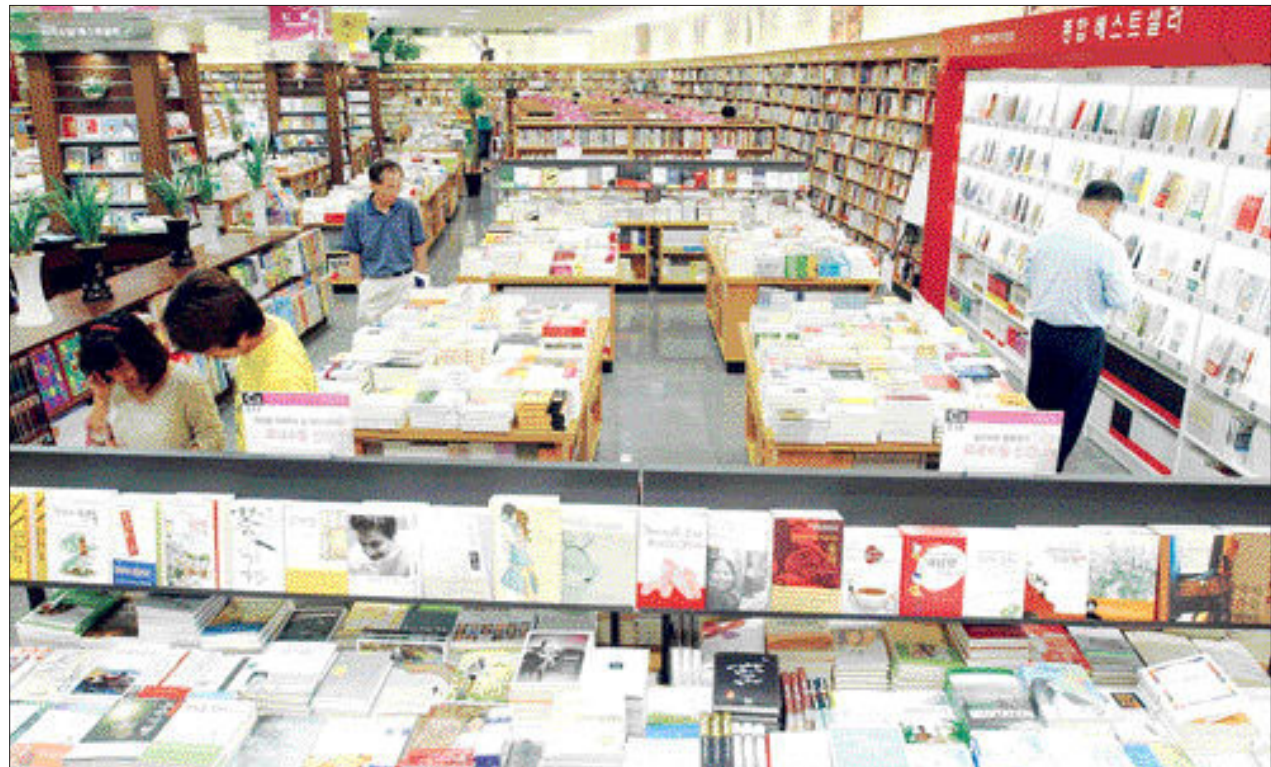
하지만 토종 서점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광주시서점조합’(조합장 박종남)은 최근 “광주 영세서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학습참고서 판매라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풍문고 측에 보냈다. 학습참고서가 시내 영세 서점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조합장 박기원 대표는 “영풍이 가면 교보도 간다는 설이 있다”며 “신세계·롯데 등 대형 백화점의 광주 진출 이후 가든·화니백화점 등 토종 유통업체가 힘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서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직시해야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교보나 영풍 등 대형 서점의 지방 체인화가 가속되면서 도서 정가제 등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도매상도 중앙 집중 또는 거대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출판사 측 입장에서 대형 도매상 한 곳, 온라인 서점 서너 곳, 큰 서점 서너 곳 등 몇 군데의 거래처만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우처럼 대형 서점과 지역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서점·출판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광주의 서점 수는 ▲2004년 258곳 ▲2005년 247곳 ▲올 상반기 217곳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인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는 8천800원이었다.



지난 1일 개장한 영풍문고 광주점의 내부 모습. 대형 서점이 등장하면서 광주 지역 서점계는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평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김동두 (6869)



영제2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중 35세대 353세대 문의 (062)366-4220

여군 소령 숨져 헌병대 수사

육군 광주병원에 근무 중인 여군 간호장교인 황모(여·42) 소령이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무지개다리아에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져 헌병대가 수사에 나섰다. /이승배기자 lsb54@

공사현장 굴삭기 등 중장비 10대 파손

○3일 오전 8시경 광주시 광산구 도덕동 ‘국도 22호선 광주~영광 구간 확장공사’ 현장 등 광주·전남의 공사장 곳곳에서 모두 10대의 굴삭기가 파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파손된 굴삭기들은 모두 ‘광주·전남 대형 굴삭기 사업자협회’가 발부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었으며, 부착한 차량은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인 한모(45)씨는 “지난 3월부터 ‘모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종종 왔었다”고 진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국민연금·세금 ‘환급금 사기’ 잇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 직원을 사칭, 세금 환급을 미끼로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환급금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광주지사 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국민연금 직원을 사칭,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기 전화가 15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모씨(35)가 지난 5월30일께 60여만원을 사기당하는 등 광주·전남에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피

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광주지역 식당 주인 김모씨는 “2년간 소득세 50만원을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들 사기범들은 국민연금 또는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액을 송금해준다고 한 뒤,

공단·세무서 직원 등 사칭 ‘환급액 송금해준다’ 전화 계좌번호 알아내 예금 인출

“은행 잔산 오류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를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직접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환급금과 관련,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곧바로 관할 국민연금 지사나 세무서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microwave oven. Text includes: '전기만 사용하는 태양초 고추건조기', '20년 경험과 뛰어난 기술로 탄생한 최고의 유일건조기', '유일건조기의 특징', '건조기 구매를 망설임 없이 구입하십시오', '전국대리점모집 : 출시 기념 특가 판매', '주유일' logo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a mobile phone. Text includes: '재혼, 이름값 하네!', '000 행복순환 (062) 527-3388', '000 행복순환 (062) 527-3388', and a photo of a woman.